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9, No. 112, pp.83-128
<https://doi.org/10.29212/mh.2019..112.3>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지리요소에 의한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변화

- 1차대전 시 독일과 냉전기 소련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동은*

1. 서 론
2. 이론적 검토 및 개념 고찰
 - 가. 해양전략의 개념
 - 나. 해양전략의 유형
 - 다. 결정요인 : 지리요소와 해양전략의 관계
3.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해양전략 변화
 - 가. 독일과 영국 간 해군력 군비경쟁
 - 나. 독일과 영국 간 지정학적 조건 : 해상봉쇄의 가능성
 - 다. 유틀란트 해전 이후 독일의 해양전략 변화
4. 냉전기 소련해군의 해양전략 변화
 - 가. 소련과 미국 간 해군력 군비경쟁
 - 나. 소련과 미국 간 지정학적 조건 : 해상봉쇄의 어려움
 - 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소련의 해양전략 변화
5. 결 론

*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석사과정. 해군소령(진)

1. 서 론

21세기 들어 본격화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 해양패권경쟁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해상에서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자국 해상교통로(SLOC: Sea Lines of Communication)의 안정적 확보를 목표로 시사군도와 난사군도,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등의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대만과의 양안(兩岸)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을 시행하고, 한국·일본·인도·호주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중국을 향한 포위망을 점차 세밀하게 좁히고 있다. 최근 발생 중인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해양패권국’ 미국의 지위에 도전장을 내미는 ‘해양패권 도전국가’ 중국의 야심찬 ‘해양굴기(海洋崛起)’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해양전략을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해양패권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해양패권에 도전하는 국가의 해양전략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그로 인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변화를 연구하는 과정은 유의미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 상 해양패권 도전국가는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제1차 세계 대전 시 독일과 냉전기 소련의 해양전략 변화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독일과 소련의 사례를 보면 각각 유틀란드 해전(Battle of Jutland)과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라는 특정 사건을 계기로 도전국가의 해양전략이 극적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조건의 차이로 인해 양국의 해군력 건설방향과 해양전략 변화가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첨단기술 중심의 전력 건설에 매몰되어 기술요소에만 집착하

는 현대 해군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해양전략 수립 시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의 중요성을 간과한 대표적 사례이다. 독일은 1888년 빌헬름 2세(Wilhelm II) 즉위 이후 급격하게 해군력을 성장 시킨다. 당시의 해양패권국 영국과 대적할 만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주창(主唱)한 독일의 티르피츠(Alfred von Tripitz) 제독이 해군장관에 임명된 이후 독일은 해군력 건설을 위한 해군법을 5차례에 걸쳐 제·개정하면서 영국과의 건함경쟁을 본격화한다.¹⁾ 하지만 당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해군을 능가하는 해군력을 단기간 내 건설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며, 독일은 영국에 의해 쉽게 해상봉쇄를 당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 하에 놓여 있었다. 결국 이러한 독일의 도전은 해전사 상 마지막 전함 간 함대 결전인 1916년 유틀란트 해전에서 좌절되었고, 이 실패를 계기로 독일의 해양전략은 잠수함(U-Boat)을 활용한 통상파괴전(Commerce Raiding)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반면 냉전기 당시 소련은 해양전략 수립 시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략 수립에 적극 반영한 대표적 사례이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해군력 건설에 소홀했던 소련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해양패권국 미국에게 완패했다. 당시 소련은 해양패권국인 미국에 비해 매우 열세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가 수뇌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1956년부터 1985년까지 소련해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한 고르시코프(Sergey G. Gorshkov)는 소련해군 전력발전의 적기(適期)를 놓치지 않기 위해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수세적인 특성을 보였던 소련의 해양전략을 공세적으로 전환시켰다.

1) 해군 전투발전단 편, 『독일 해군사 연구: 해군력 건설·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논산 : 해군본부, 2002), 78~85쪽.

특히 고르시코프는 미국이 소련에 대한 전면적 해상봉쇄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균형함대(Balanced Fleet)’²⁾ 건설이란 기치(旗幟) 아래 잠수함 중심의 해군력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이러한 고르시코프의 노력은 결국 1970~80년대에 이르러 빛을 발했으며, 소련은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보유한 해군강국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독일과 소련의 사례를 통해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와 해양전략의 관계를 규명해보았다. 영국에 의해 해상봉쇄가 용이한 지정학적 어려움을 가졌던 독일은 영독 연합경쟁과 유틀란트 해전을 통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수세적인 해양전략으로 전환하고 말았다. 반면 광활한 영토와 해안선을 가진 소련은 미국에 의한 해상봉쇄가 매우 어렵다는 지정학적 이점을 십분 활용하여 보다 공세적인 해양전략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로 귀결된 해양패권 도전 국가의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고찰해봄으로써 21세기 미중 간 신 해양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 글의 구성은 총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해양전략의 개념과 유형, 지리요소와 해양전략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개념적 고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패권 도전 국가의 해양전략에 대한 분석의 틀을 마련한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독일과 소련의 해양전략 변화를 해군력 군비경쟁, 지정학적 조건, 해양전략 변화라는 세 가지 중점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본론 내용을 정리하고 두 사례 간 유사점

2) 균형함대란 ‘국가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구현을 위해 전투함대의 기능인 어떠한 분쟁 상황하에서도 성공적인 전투작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요소를 구비하고, 평화시에는 통제함대의 기능인 국가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단독작전이 가능한 임무와 구조에서의 균형을 이룬 종합적인 능력을 구비한 함대’라고 고르시코프가 정의했다. 해군 전쟁단 전력발전처 편,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137~138쪽.

과 차이점에 대해서 논한 후 이 연구가 현재진행형인 미중 간 해양 패권경쟁에서 해양패권 도전국가인 중국의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검토 및 개념 고찰

가. 해양전략의 개념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이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력의 제 수단을 발전시키고 운용, 조정하는 술과 과학”³⁾이라고 정의된다. 국가전략은 크게 국가안보전략과 국가발전전략으로 구분되며 국가안보전략은 주로 국가의 생존과 연관되는 전쟁이나 군사, 외교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국가발전전략은 국가의 번영과 관련된 경제발전과 관련 내용이 주를 이룬다.⁴⁾ 또한 국가전략은 기능과 분야에 의해 세부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 통상적으로 군은 국가안보전략의 수단으로써 인식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 중에서도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 중점을 두고 국가목표 또는 국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술과 과학”⁶⁾으로 정의되는 군사전략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가전략의 세부 하위분야 중 하나인 해양전략은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술과 과학”라고 정

3) 합동참모본부 편,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14), 6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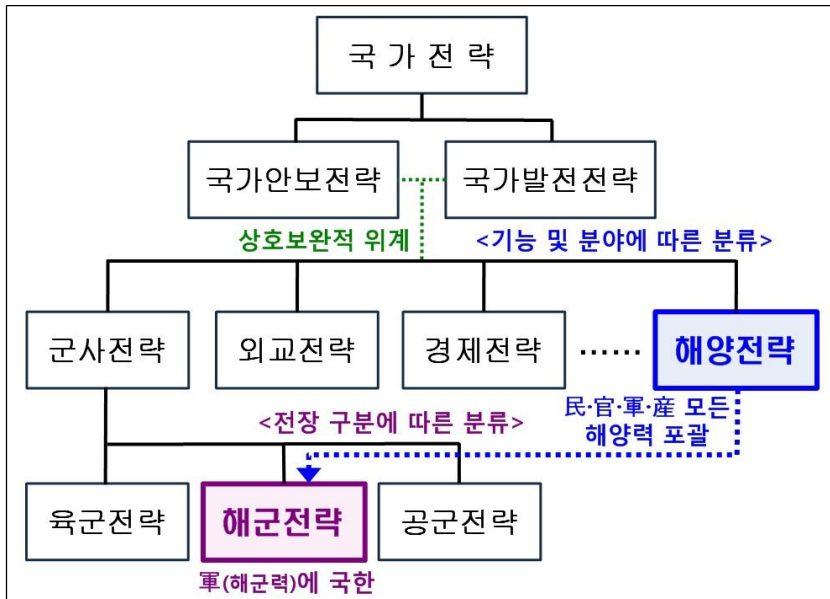
4)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 플래닛 미디어, 2014), 112~113쪽.

5)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8), 8~11쪽; 하정열, 『국가전략론-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2009), 23~25쪽

6) 합동참모본부 편 (2014), 76쪽.

의되며, 군사전략의 세부 하위분야 중 하나인 해군전략은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목표 또는 해양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군력을 운용하는 술과 과학”이라고 정의된다.⁷⁾ 해군력 이외에 정부, 민간, 산업계의 해양력까지 포괄하는 해양전략은 광의의 개념이며, 반면에 해군전략은 해군력에만 국한되는 협의의 개념이다. 독일과 소련의 해양전략 사례연구에서 해군력 변화양상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것이므로 이번 연구에서 해양전략의 개념은 협의의 개념인 해군전략의 개념에 준하여 적용할 것이다.

<그림 1> 국가전략의 체계



* 출처 : 하정열, 『국가전략론—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2009), 23~43쪽;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4), 107~125쪽; 한용섭,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2018), 8~27쪽을 참고하여 저자가 정리하였음.

7) 해군 전평단 전력발전처 편 (2017), 120쪽.

‘해양패권 도전국가’란 개념은 “무력으로 해양패권국을 압박하여 자기의 해양세력(영역)을 넓히려는 권력을 추구하는 불만족 도전 강대국”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해양패권 도전국가’란 용어는 ‘해양패권’과 ‘도전국가’라는 단어를 합친 것으로써, 표준국어대사전 상 패권은 “국제정치에서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이라고 정의된다. 해양패권은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여 자기의 해양세력(영역)을 넓히려는 권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가의 수단을 ‘무력’에 집중하여 분석할 것이다. ‘도전국가’란 용어는 세력 전이이론을 주창한 오간스키(A.F.K. Organski)의 위계적 국제질서 구조상의 개념 중 ‘불만족 도전 강대국(Dissatisfied Great Powers)’라는 개념⁸⁾을 차용하였다.

나. 해양전략의 유형

해양전략의 유형은 국가전략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해군력 운용개념의 세 가지 범주(해양통제, 해양우세, 해양거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해양통제란 “아군이 필요로 하는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해역에서 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적의 해양사용을 거부하기 위하여 적의 해군력을 효과적으로 제압 또는 통제하는 상태”⁹⁾라고 정의된다. 해양통제의 개념은 마한(Alfred T. Mahan)의 ‘제해권(Command of the sea)’¹⁰⁾ 개념

8) A.F.K. Organski, World Politics (N.Y. : Alfred a. Knopf, 1968), p. 380.

9) 합동참모본부 편 (2014), 617쪽.

10) 마한은 제해권에 대해서 “바다에서 적기(敵旗)를 몰아낼 수 있는 월등한 힘. 해양에서 인원과 물자를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수송하는 능력을 확보하고, 적의 그러한 능력은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 전쟁단 전력발전처 편 (2017), 122쪽.

에서 출발하여, 콜벳(Julian S. Corbett)의 ‘해양통제’¹¹⁾ 개념으로 변모했으며, 이는 1970년대에 미국 해군제독인 에클레스(Henry E. Eccles)와 터너(Stansfield Turner)에 의해 ‘해양통제(Sea control)’라는 용어로 구체화, 체계화되어 점차 절대적 해양통제의 개념에서 상대적 해양통제의 개념으로 변화하였다.¹²⁾ 이와 같은 해양통제 개념의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전략의 유형 중 해양통제는 가장 공세적인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양통제의 목적은 광대한 목표공간에서의 아측의 자유로운 해양사용을 보장이며, 주요 수단과 해군력 전력구조는 전함, 항공모함, 순양함 등 대형 전투함 위주로 이루어지고, 해군력 운용방법은 주로 함대봉쇄, 대규모의 함대결전 등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해양우세(Sea Superiority 또는 Maritime Superiority)란 “해양을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해역에서 적보다 상대적 우세를 달성함으로써 적의 방해를 거부하고 아측이 원하는 대로 해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 해군력을 제압하는 상태 또는 그러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의 우세 정도”¹³⁾라고 정의된다. 해양우세란 제해권의 개념에서 파생된 해양통제에 비해서는 수세적이나, 가장 수세적인 해양거부에 비해서는 공세적이므로 중도적이며 복합적인 해양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해양우세의 목적

11) 콜벳은 “제해권이란 상업적이든 또는 군사적 목표이든 간에 해상교통로 통제 이외의 의미는 없으며, 이는 지상에서 말하는 영토의 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제해권은 절대적 개념이 아닌 상대적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해군 전평단 전력발전저편 (2017), 292쪽.

12) 해양통제의 개념은 콜벳, 에클레스, 터너를 포함한 다양한 해양전략가들의 논의를 거치며 마한이 주창한 절대적인 제해권 개념에서 점차 상대적인 개념으로 변모하며 현대해군의 실질적 목표는 ‘해양우세’의 개념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해양전략의 공세성과 수세성을 기준으로 해양전략을 세가지로 범주화하기 위하여 해양통제와 해양우세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프리 킬, 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291~295쪽.

13) 합동참모본부 편 (2014), 617쪽.

은 협소한 목표공간에서의 아층의 제한적 해양사용을 보장이며, 해군력 운용방법은 주로 적극적 현존함대, 소규모의 함대결전 등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요 수단과 해군력 전력구조의 측면에서 해양우세는 대형 전투함과 잠수함의 비율을 기준으로 대형 전투함과 같은 대칭전력의 비율이 높은 ‘대칭적 형태의 해양우세(이하 대칭적 해양우세)’와, 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의 비율이 높은 ‘비대칭적 형태의 해양우세(이하 비대칭적 해양우세)’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해양거부(Sea Denial)란 “아군의 해양통제 노력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도하면서 적의 해양사용 거부에 중점을 두는 것”¹⁴⁾이라고 정의된다. 해양거부 개념의 유래는 19세기 후반 프랑스 ‘소장학과(Jeune Ecole)’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주로 소규모의 약소국 해군들이 추구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므로 해양거부는 가장 수세적인 해양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해양거부의 목적은 목표해역에서의 적국의 해양사용 거부이고, 주요 수단과 해군력 전력구조는 잠수함, 소형함(기뢰부설함, 어뢰정) 등 비대칭 전력이 중심이며, 운용방법은 주로 통상파괴전, 연안방어 등으로 볼 수 있다.

<표 1> 해양전략의 유형 : 해양통제, 해양우세, 해양거부

구분	해양통제(공세적)	해양우세(복합적)		해양거부(수세적)
목적	넓은 해역에서의 자유로운 해양사용	협소해역에서의 제한적 해양사용		목표해역에서의 적국의 해양사용 거부
수단 및 전력구조	대형 전투함 위주 (대칭적)	대칭적	비대칭적	잠수함, 소형함 위주 (비대칭적)
		수상함 위주	잠수함 위주	
운용방법	해상(함대)봉쇄, 대규모 함대결전	적극적 현존함대, 소규모 함대결전		통상파괴전, 연안방어, 소극적 현존함대

* 출처 : 알프레드 T. 마한,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서울: 책세상, 2016); 줄리언 S. 콜벳, 김종단·정호섭 공역, 『해양전략론』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제프리 킬, 배형수 역, 『21세기 해양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1);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 미디어, 2014); 해군 진평단 교리발전처 편, 『기본교범 0 해군기본교과』 (계룡: 해군본부, 2017); 해군 진평단 전력발전처 편,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2017) 등의 해양전략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저자가 해양전략의 유형을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음.

14) 해군 진평단 전력발전처 편 (2017), 126쪽.

다. 결정요인 : 지리요소와 해양전략의 관계

‘공격-방어 이론’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는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공격-방어 이론(Offense-defense theory)이란 공격과 방어의 균형(Offense-defense balance)의 변화, 즉 공격과 방어의 유리함의 가변성에 의해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분석하는 이론이다. 공격과 방어의 유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격-방어 균형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며 학자마다 강조하는 요소가 조금씩 상이하다. 저비스(Robert Jervis)는 ‘기술’과 ‘지리’¹⁵⁾에 중점을 두었고, 에버라(Stephen von Evera)는 ‘군사기술’, ‘군사교리(Doctrine)’, ‘지리’, ‘외교행태’를¹⁶⁾ 주요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글래서(Chales L. Glaser)와 카우프만(Chaim Kaufmann)은 ‘기술’, ‘지리’, ‘군사력 규모’, ‘자원투자’등을¹⁷⁾ 핵심변수로 제시했다.

학자마다 초점을 맞추는 요소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주요 요소는 바로 ‘지리’와 ‘기술’이다. 나폴레옹 전쟁이나 미국 남북전쟁이 있던 19세기 중반까지는 전쟁과 전략에 있어서 ‘기술’이라는 요소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장에서 맞서는 상대국의 군대는 자국의 군대와 기술적으로 거의 동등한 수준의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¹⁸⁾ 하지만 19세기 후반부터 급 격화된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쟁과 전략에 있어서 기술은 가장

15)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Jan, 1978), pp.194~199.

16) Stephen van Evera,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Spring, 1998), pp.16~22.

17) Chales L. Glaser and Chaim Kaufmann, "What is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Can We Measure it?," *International Security* 22:4 (Spring, 1998), pp.60~72.

18) 버나드 르 몽고메리, 승영조 역,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2006), 693~741쪽.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상대방 군대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세한 기술로 무장한 군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릇된 환상이 전략가들과 군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함정 건조 및 탑재장비의 고도화된 기술이 곧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19세기 후반 이후의 해군에게는 기술 중심의 경향이 특히 더 강해졌다. 이스라엘의 헤브류(Hebrew) 대 전쟁사 교수인 클레벨트(Martin van Creveld)는 저서를 통해 “역사 속의 수많은 해상전투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과학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되었다”¹⁹⁾라고 말하였고, 서울대 정치외교학 명예교수인 박상섭 역시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창조한 군사 분야에서의 혁신적 변화는 해군과 관련해서 볼 때 지상군에 비해 훨씬 더 심대했다”²⁰⁾라고 말하는 등 첨단기술의 발전은 현대의 해군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졌다.

하지만 최첨단 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²¹⁾ 전 세계는 여전히 지정학(Geopolitics)의 지배하에 놓여있다. 미국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을 역임함 카플란(Robert D. Kaplan)은 지리나 지정학이 실효성 없는 낡은 학문이라는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여전히 세계는 지리와 지정학의 논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며,²²⁾ 특히 2010년대 들어 대두되고 있는 중국의 해양팽창 역시 미중 간의 지정학적 계산법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²³⁾ 또한 영국 유력 언론매체의 중군기자 출신인 마샬(Tim

19) 마틴 반 클레벨트, 이동욱 역, 『과학기술과 전쟁: B.C 2000부터 오늘날까지』 (서울: 황금알, 2006), 246쪽.

20) 박상섭, 『테크놀로지와 전쟁의 역사』 (과주: 아카넷, 2018), 271~272쪽.

21) 클레벨트 역시 저서인 『과학기술과 전쟁』 을 통해 과학기술이 전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결국 과학기술이 할 수 없는 분야가 분명 존재한다고 말했다; 클레벨트 (2006), 379~3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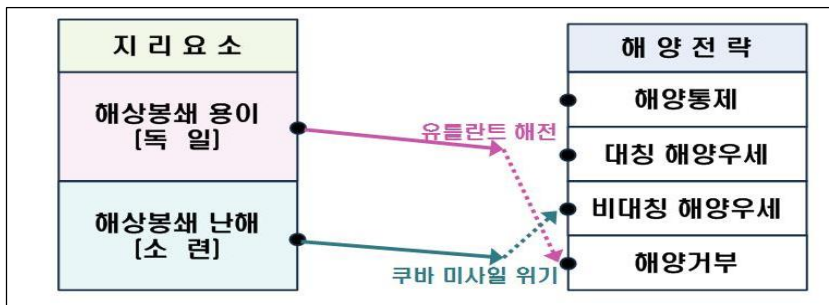
22) 로버트 D. 카플란, 이순호 역, 『지리의 복수』 (서울: 미지북스, 2017), 59~79쪽.

23) Robert D. Kaplan,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 Vol.89 No.3 (May/June 2010), pp.22~41.

Marshall) 역시 “항공기와 인터넷의 도래로 철옹성 같던 지리의 법칙이 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각 지역별 지리적 특성이 형성된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과 미래의 세계구도를 이해하는데 핵심적 요소”라고²⁴⁾ 말하는 등 국제관계 속에서 여전히 지리가 중요한 핵심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의 재부상(再浮上)은 한동안 제국주의자로 매도(罵倒)되었던 마한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한은 1890년 발간한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통해 해양력에 영향을 주는 일반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리적 위치’²⁵⁾라고 언급했다. 지리적 위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지나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시대를 뛰어넘는 지리의 중요성은 1차대전 시 해양패권국 영국과 도전국가 독일의 사례, 냉전기 해양패권국 미국과 도전국가 소련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다. 독일과 소련이란 주요 해양패권 도전국가에 대한 사례연구는 현재진행 중인 21세기 미중 간 해양패권경쟁에도 큰 함의를 줄 것이다.

<그림 2> 지리요소와 해양패권 도전국가 해양전략의 관계



* 출처 : 저자 작성.

24) 팀 마샬, 김미선 역, 『지리의 힘』 (서울: 사이, 2016), 17~18쪽

25) 알프레드 T. 마한, 김주식 역,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서울 : 책세상, 2016), 76~83쪽.

지리와 기술요소에 대한 많은 논쟁과 최첨단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는 여전히 해양전략의 핵심적 변수이며, ‘기술요소(해군력 수준)’는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변화를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부가적 지표에 불과하다. 지리요소는 해양패권 도전국가에 대한 해양패권국의 해상봉쇄 용이성이란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양패권국의 해상봉쇄가 해양패권 도전국가에게 더욱 더 치명적이고 도전국가가 봉쇄를 깨뜨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도전국가의 해양전략의 실패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리요소는 해양패권 도전국가가 처한 ‘지정학적인 조건’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해양패권 도전국가에 대한 해양패권국의 해상봉쇄 용이성에 따라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성공가능성 변화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변수이다. 기술요소는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을 범주화하는 부가적 지표로써 활용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냉전기 당시 소련이 해양패권 도전실패를 경험한 이후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를 고려하여 어떻게 해군력 규모와 구조를 변화시켜 나가는 지를 계량화²⁶⁾하여 도전국가의 해양전략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였는지를 관찰할 것이다.

26) 해군력 수준의 변화는 해군력 규모(주력 동급함 기준 해양패권국 8 : 도전국가 5 기준)와 해군 전력구조의 대칭성 정도[대칭전력(전함, 항공모함, 순양함 등)과 비대칭 전력(잠수함 등)의 비율 기준]로 측정할 것이다. 독일과 소련해군의 해양전략 변화를 설명하는 해양우세와 해양거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각 국의 해군력 규모와 해군 전력구조의 대칭성 정도가 도전실패를 계기로 변화하는 수치를 기준으로 설명할 것이다. 또한 해양전략 중 해양우세를 비대칭적 해양우세와 대칭적 해양우세로 구분하는 기준은 전력구조의 대칭성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것이다.(8:5 라는 수치의 기준은 1차대전 직전 영독 해군협상 결렬 후 1913년 7월에 영국이 발표한 독일해군에 대한 대응책에 명시된 수치로써, 해양거부적인 해양전략이 해양우세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설명하는 참조점으로 삼았다.) 박상섭, 『1차 세계대전의 기원: 패권경쟁의 격화와 제국체제의 해체』 (서울 : 아카넷, 2014), 74-88쪽;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214~219쪽.

3.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의 해양전략 변화

가. 독일과 영국 간 해군력 군비경쟁

1888년 빌헬름 2세가 29세의 젊은 나이로 독일제국 황제로 즉위하면서 독일의 해양전략은 일대 전환기를 맞는다. 당시 빌헬름 2세는 미국의 해양전략가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에 심취해있었다.²⁷⁾ 빌헬름 2세는 마한의 저서인 『해양력이 역사에 미친 영향』을 거의 모두 암기할 정도로 탐독했으며, 독일해군 예하 모든 함정에 비치하라고 지시했다.²⁸⁾ 이처럼 마한의 해양전략사상에 매료된 빌헬름 2세의 해양전략은 자연스레 마한이 주창한 ‘전함 위주의 함대결전’ 중심²⁹⁾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었다.

<표 2> 1883~1897년까지 서구열강의 전함 보유 현황

구 분	1883년	1897년	구 분	1883년	1897년
영 국	38	62	러시아	3	18
프랑스	19	36	이탈리아	7	12
독 일	11	12	미 국	0	11

* 출처 : 폴 M. 케네디, 김주식 역, 『영국 해군지배력의 역사』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384쪽.

하지만 <표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빌헬름 2세 재위 초기 독일해군력의 성장은 크게 돋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1896년에는 독일 제국 의회가 해군예산 대폭 삭감을 시도하기도 했었다. 이러한 독일 내 분위기가 자신의 팽창주의적 대외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 여긴 빌헬름 2세는 공세적 대외정책 구현을 위해서 티르피츠를 해군장관으로 임명했다.³⁰⁾ 티르피츠는 1897년 6월 매우 공세적이고 혁신적인 독일

27) 박상섭 (2014), 39~40쪽.

28) 박창희 (2014), 284~287쪽.

29) 마한 (2016), 112~143쪽.

30) 박상섭 (2014), 41쪽.

해군력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티르피츠는 독일해군의 주요위협을 프랑스나 러시아 해군이 아닌 당시 전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보유한 영국해군으로 가정하며 영국에 대한 해양패권 도전을 시작한다.

이뿐만 아니라 티르피츠는 영국해군에게 맞서기 위한 위해 중·소형함정 중심의 ‘해양거부적’ 방안이 아닌 대형 전투함(전함) 중심의 ‘대칭적’이고, ‘해양우세적’인 해군력 발전 방안을 고안하여 추진한다. 또한 티르피츠는 1897년 12월 6일 해군장관 취임 이후 최초의 독일 제국의회 연설에서 “독일 해군의 문제는 독일의 생존을 위한 문제가 되었다”라고 말하며³¹⁾, 영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기 위한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간접적으로 표출한다.

빌헬름 2세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티르피츠는 해군장관 취임 이듬해인 1898년 독일 역사상 최초로 ‘해군법’을 제정하며 도전적이고 공세적인 구상을 곧장 정책으로 실현한다. 최초 제정된 해군법의 주요내용은 전함 19척을 포함한 대형 전투함 위주의 함대를 1904년까지 건조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영국의 강력한 함대에 맞서겠다는 독일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의 시작을 알리는 효시(嚆矢)가 되었다. 2년 후인 1900년에는 1899년 보어전쟁과 1900년 1월 아프리카 연안에서 독일 선박에 대한 영국해군의 강제수색 사건으로 인해 독일 내부의 반영(反英) 감정이 고조되어 영국에 맞서기 위한 강력한 해군력 건설을 요구하는 국내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부응하여 독일 해군법은 전함 전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 1차 개정되었다. 티르피츠는 1차 개정을 통해 기존의 전함 ‘19척 체제’에서 ‘38척 체제’로 전함 건조 목표를 상향조정함으로써³²⁾, 더욱 더 대칭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을 추구한다.

31)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2), 65쪽.

32) 영국은 독일의 전함 위주 해군력 건설정책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영독 해군협상 시 독일해군의 해군력 정책과 전함 건조 속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2), 80쪽.

<표 3>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의 해군력 비교

구분	영국	독일	구분	영국	독일
전함	60	33	경순양함	74	41
전투순양함	9	4	구축함	167	130
장갑순양함	34	9	잠수함	78	30

* 출처 : 윌리엄 O. 스티븐스, 앨런 웨스트콧,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서울: 연경문화사, 1979), 328쪽.

독일은 해군법 1차 개정 이후에도 세 차례의 추가 개정을 통해 공세적 해양전략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독일해군은 1906년 2차 해군법 개정을 통해 영국의 드레드노트(Dreadnaught)급 전함³³⁾ 건조에 대응하기 위해 건조가 이미 계획된 전함 38척 중 18척을 영국의 드레드노트급에 준하는 대형전함으로 대체하는 것을 결정한다. 이는 영국해군을 자극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어 영국과 독일 간 무제한적 건함경쟁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한다. 1908년 3차 개정된 독일 해군법은 영독 건함경쟁이 가속화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하여 연간 전함 건조율을 2척에서 4척으로 증가시키고, 함정 대체기간을 5년 단축해 함대 전력을 급속히 증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영국해군과의 본격적인 ‘대칭적 건함경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독일해군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912년 4차 해군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함대편성 시 전함 3척을 비롯한 중형 전투함 등을 보충하고, 상시 출동임무 수행이 가능한 제3전투전단 편성 등 이다.³⁴⁾ 독일은 마지막 4차 해군법 개정에서 역시 전함을 중심으로 하는 독일 대양함대(High Seas Fleet)의

33) 영국의 드레드노트급 전함은 12인치 대구경 함포 10문을 장착하고, 증기터빈 기관을 이용하여 최대속력 21kts로 기동가능한 당시의 혁신적인 군함이었다. 독일은 이에 대항하여 동급의 낫사우(Nassau)급 전함을 건조하기 시작한다. 흔히 ‘노급 전함’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R. G. 그랜트, 조학제 역, 『해전 3000년』 (계룡: 해군본부, 2012), 260쪽.

34)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2) 81~82쪽.

적극적인 작전수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영국에 대항하여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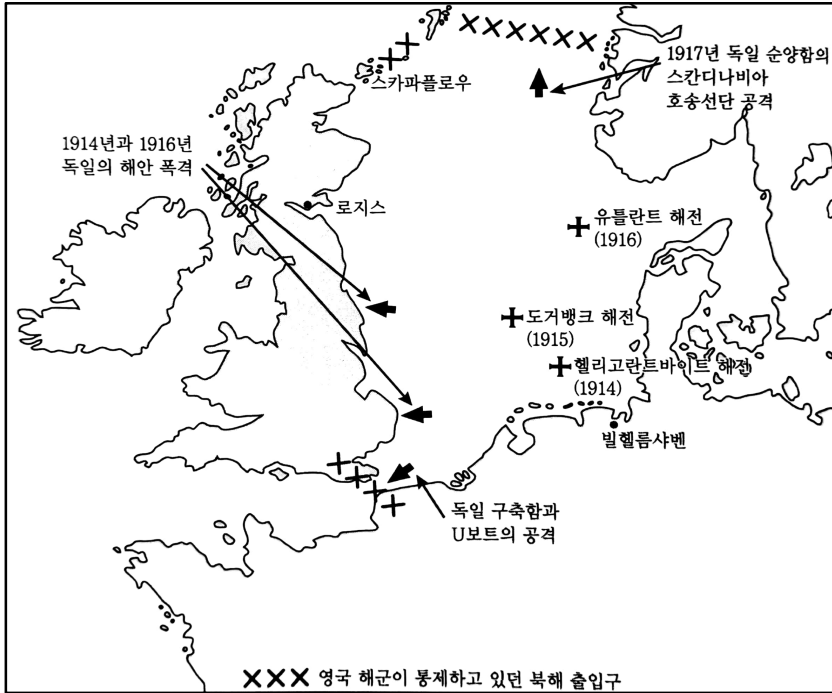
나. 독일과 영국 간 지정학적 조건 : 해상봉쇄의 가능성

대칭적 해양우세적 성격을 가진 독일의 해군법 1차 개정은 당시 해양패권국 영국을 크게 자극한다. 이에 영국은 독일의 해양패권 도전을 저지하고자 독일에 대한 전면적 해상봉쇄를 계획한다. 독일의 해군법 1차 개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독일해군은 1917년까지 전함 38척을 포함한 약 100여척의 중·대형 전투함을 확보하게 되어, 영독 간 해군력 비율은 3:2까지 이를 지경이었다.³⁵⁾ 이에 영국은 독일의 위협적인 도전에 대응하고자 해군참모총장 피셔(John A. Fisher) 제독의 진두지휘 아래 대응조치를 마련한다. 피셔는 독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에 분산 배치되어 있는 영국해군을 도버해협, 대서양, 지중해로 집중시킨다.³⁶⁾ 이는 독일에 대한 해상봉쇄를 시행함과 동시에 독일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림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은 약 40km 밖에 되지 않는 매우 협소한 도버해협(Strait of Dover)과 영국 본토와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이의 오크니 제도(Orkney Islands), 셰틀랜드 제도(Shetland Islands) 사이에 해군력을 집중 배치하고, 기뢰를 부설하여 독일의 대서양 진출을 원천 봉쇄한다.

35) 김용구 (2017), 178~179쪽.

36) 폴 M. 케네디, 김주식 역,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399쪽.

<그림 3>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영국해군과 독일해군 간 전략적 상황



* 출처 : 폴 M. 케네디, 김주식 역,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0), 450쪽.

위와 같은 영국의 전면적인 대독일(對獨逸) 해상봉쇄는 유틀란트 해전 시까지 유지되던 독일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해양거부’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빌헬름 2세와 티르피츠가 심혈을 기울여 건설한 대형전투함(전함) 위주의 독일 대양함대는 영국의 강력한 해상봉쇄를 돌파하지 못한다. 대규모 함대건설을 위해 투입된 엄청난 비용 대비 미미한 성과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독일해군은 대양함대를 이용해 국가지도부와 국민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어야만 했고, 이는 결국 1916년 5월 유틀란트 해전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독일은 유틀란트 해전 이후에도 영국의 견고한 해상봉쇄를 깨뜨릴 수 없었다. 유틀란트 해전을

계기로 독일은 지정학적 이점과 막강한 해군력을 모두 지닌 영국을 상대로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고집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결국 독일은 영국의 강력한 해상봉쇄를 뚫고 대양으로 자유로운 진출이 가능한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U-Boat)을 활용하는 통상과피전 중심의 ‘해양거부’ 전략으로 전환한다.

개전 직후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며 독일 잠수함(U-Boat)의 대서양 진출이 매우 용이했던 제2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대서양이 독일에게 열려버린 영국의 ‘재앙’이 발생하지 않았다.³⁷⁾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은 대서양으로 이어지는 북해의 관문을 결코 쉽게 통과할 수 없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해군참모총장 피셔가 국왕 조지 5세(George V)에게 해군의 작전 상황을 보고하며, “북쪽의 큰 항구 스카파 플로우(Scapa Flow, 오르니제도 소재)와 남쪽의 좁은 도버 해협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의 선택을 받은 국민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³⁸⁾라고 말한 것은 독일의 지정학적 고난을 잘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영국의 견고한 해상봉쇄를 돌파하는데 부적합했던 독일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 실패의 결정적 요인은 독일과 영국 간의 지정학적 조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37) 제2차 세계대전 시 ‘이리떼 전술(Wolf Pack)’을 통해 연합국 해군과 상선들에게 악명을 떨친 독일의 잠수함(U-Boat)은 1940년 7월 프랑스 서부 해안의 비스케이만(Bay of Biscay) 지역을 잠수함 전진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과는 달리 전쟁 초기에 지상군 전역에서 프랑스를 쉽게 점령하면서 대서양에 연한 프랑스 서부해안의 주요 항구를 잠수함(U-Boat)이 대서양으로 쉽게 접근하기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대서양이 독일에게 열린 것’은 영국에게 ‘재앙’과도 같은 일이었다. 칼 되니츠, 『10년 20일』 안병구 역(서울 : 삼신각, 1995), 98~112쪽; 케네디 (2010), 537~538쪽.

38) A. Gordon, *The Rules of the Game* (London: John Murray, 1996), p.21.

다. 유틀란트 해전 이후 독일의 해양전략 변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이후 1916년 5월 유틀란트 해전까지 독일과 영국 간 소규모 교전은 총 4차례 있었으나, 독일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양국해군 간 교전 중 2회(코로넬(Coronel), 포클랜드(Falkland))는 각각 남태평양과 남대서양에서, 나머지 2회(헬리골란드 마이트(Heligoland Bight), 도거뱅크(Dogger Bank))는 북해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4차례의 해전 모두 양측의 주력인 전함이 참가하지 않은 채 순양함, 구축함, 어뢰정 등 중·소형 함정만을 활용하여 국지적인 교전 수준에 그쳤다. 또한 4차례의 해전 중 독일은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코로넬 해전에서만 승리를 거두고 나머지 3차례 해전에서 모두 패배하고 만다. 이처럼 별다른 전과(戰果)를 거두지 못한 대형전투함(전함) 위주의 독일 대양함대는 독일계 캐나다 역사학자인 허위그(Holger H. Herwig)가 표현한 바와 같이 ‘고비용 저효율’의 ‘사치스러운(Luxury)’ 장식품과 같은 존재로 전략하고 만다.³⁹⁾

독일 대양함대 사령관 라인하르트 셰어(Reinhard Scheer)는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 독일해군의 존재가치를 입증하고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작전수행을 계획한다. 셰어의 사령관 취임 이후 독일해군은 1916년 2월부터 5월까지 총 6차례 출동임무를 수행했으며, 영국 동부해안의 도시 로우스토프트(Lowestoft)를 포격하는 등 공세적 임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다.⁴⁰⁾

39) Holger H. Herwig, *LUXURY FLEET: The Imperial German Navy 1888-1918* (New York : Humanity Books, 1987), pp.143-177.

40) 존 키건, 조행복 역, 『제1차세계대전사』 (서울 : 청어람미디어, 2009), 385쪽.

<표 4> 유틀란트 해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참가전력(1916년 5월 31일~6월 1일)

구분	영국	독일	구분	영국	독일
노급 전함	28	16	장갑순양함	8	0
구형 전함	0	6	경순양함	26	11
전투순양함	9	5	구축함	79	61

* 출처: 해군 전투발전단 편, 『독일 해군사 연구: 해군력 건설·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논산: 해군본부, 2002), 145쪽.

이러한 독일 대양함대의 공세적 행동은 1916년 5월 31일 유틀란트 해전으로 이어진다. 유틀란트 해전은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거함거포주의(巨艦巨砲主義)적 전함 간 함대결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유틀란트 해전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처럼 그 명성에 비해 해전의 결과가 너무나 초라하다. 명확한 승패가 결판나는 ‘회근한’ 열전(熱戰)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영국과 독일 모두 그 누구의 확실한 승리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전과를 남긴 채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유틀란트 해전은 3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양측의 전투순양함 간의 전투로 해전이 발발된 후, 양국의 주력인 전함 간 해전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측의 주력 전함 간의 함대결전이 지속되었으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전력의 열세를 인지한 독일함대의 도주와 영국함대의 추격으로 마무리된다. 유틀란트 해전 중 양측의 손실현황으로 영국은 병력 6,000여 명, 드레드노트급 전함 3척을 포함한 함정 14척을 잃었으며, 독일은 병력 2,500여 명, 구형 전함 1척을 포함한 함정 11척을 잃었다.⁴¹⁾ 손실현황 기준으로는 독일의 ‘전술적’ 승리로 보이지만, 유틀란트 해전 이후에도 독일에 대한 영국의 해상 봉쇄가 여전히 견고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유틀란트 해전은 영국의 전략적 승리이자 독일의 전략적 패배였다.⁴²⁾

41) 그랜트 (2012), 266~269쪽.

42) 유틀란트 해전의 결과가 영국의 ‘전략적 승리’, 독일의 ‘전략적 패배’라는 점은 서구의 학자들도 유사하게 평가하고 있다. Holger H. Herwig(1987), pp. 192~198; 케네디 (2010), 445~446쪽; Lawrence Sondhaus, The Great War at Sea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4) pp.204~227.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뉴욕의 한 신문에서는 “독일 함대는 교도관(영국함대)을 공격했지만, 아직도 독일함대는 여전히 감옥 안에 있었다.”⁴³⁾ 라고 표현했다. 이는 독일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이 영국의 해상봉쇄를 깨뜨리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타란트 해전 이후 독일의 해양전략은 전함 중심의 ‘대칭적 해양우세’에서 잠수함(U-Boat) 중심의 비대칭적인 ‘해양거부’로 급격히 변화한다.

<표 5> 제1차 세계대전 기간 중 독일해군 잠수함 전력 현황

구 분	보유 척수	손실 척수	잔존 척수
1914년	31	6	26
1915년	98	25	68
1916년	118	50	138
1917년	292	122	169
1918년	372	202	170

* 출처 : Arther Hezlet, *The Submarine & Sea Power* (London : Peter Davis, 1967), p.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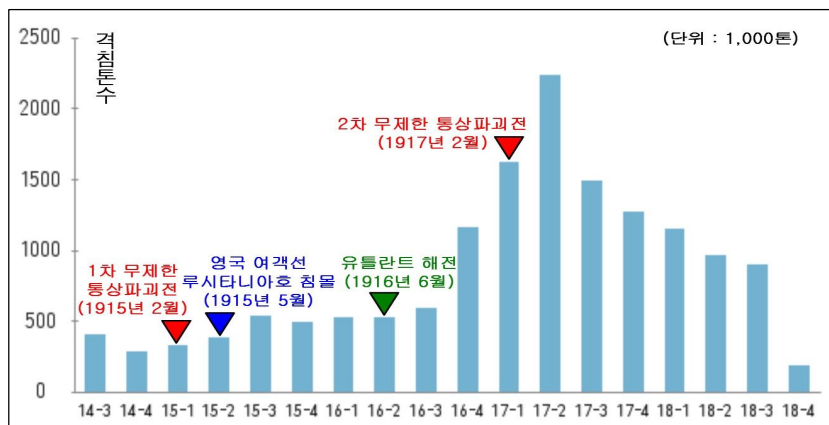
유타란트 해전 이후 독일에게 남은 마지막 한 수는 바로 ‘잠수함(U-Boat)’이었다. <표 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1차 세계대전 개전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대형전투함(전함) 위주의 전력건설 계획에 치중하여 잠수함(U-Boat) 건조를 경시했다. 하지만 독일은 개전 이후 잠수함을 이용한 통상과괴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잠수함이 상대적으로 약소한 해군이 강력한 해군에게 맞설 수 있는 효과적인 비대칭전력임을 깨달았고, 1915년 2월부터 영국 제도 주변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서 무제한 잠수함전(Unrestricted Submarine Warfare)을 시작한다.⁴⁴⁾ 하지만 1915년 5월 영국 여

43) Geoffrey Bennett, *Naval Battles of the First World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2014), p.246.

44) Robert B. Asprey, *The German High Command at War* (Lincoln : iUniverse, Inc, 2005), pp.287~294.

객선 루시타니아(Lusitania)호가 독일 잠수함(U-Boat)의 공격에 의해 침몰되며 무제한 잠수함전은 잠시 중단된다. 이 여객선에는 많은 미국인이 탑승했었고, 그 중 128명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당시 독일 지도부는 중립유지를 고수하고 있던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참전을 유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므로 1차 무제한 잠수함전은 큰 성과 없이 조기 종료되고 만다.

<표 6> 1차대전 기간 중 매분기별 독일 잠수함에 의한 연합국 상선 손실



* 출처 : 윌리엄 O. 스티븐스, 앨런 웨스트콧, 김일상 역, 『세계해전사』 (서울: 연경문화사, 1979), 435쪽.

그러나 1916년 5월 유틀란트 해전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전함 중심의 독일 대양함대는 영국의 해상봉쇄를 깨뜨릴 수 없는 ‘고비용 저효율’의 사치품이란 것이 증명되었고, 독일에게 남은 선택지는 오로지 잠수함뿐이었다. <표 5>에서도 볼 수 있듯이 1916년을 기점으로 독일은 잠수함 전력 건설 및 운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독일 지도부는 무제한 잠수함전 재개를 논의했고, 결국 1917년 2월부터 영국을 출입항 하는 모든 상선에 대한 무제한 통상파괴전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표 6>을 보면 유틀란트 해전 이후 독일의 잠수함 이용 통상파괴전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과 이에 비례하여 연

합국 상선의 격침톤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⁵⁾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해양패권 도전국가였던 독일은 유틀란트 해전에서의 전략적 패배를 계기로 대형 전투함(전함) 중심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이 지정학적 조건 고려 부적합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수세적이며 비대칭적인 성격의 잠수함 중심의 ‘해양거부’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4. 냉전기 소련해군의 해양전략 변화

가. 소련과 미국 간 해군력 군비경쟁

냉전기 당시 미국과 더불어 세계 유이(唯二)의 초강대국이었던 소련은 대륙국가의 표본이라 할 수 있다. 광활한 유라시아(Eurasia) 대륙의 약 1/5을 차지했던 소련(러시아)은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부터 대륙중심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했으며, 군사전략 역시 지상군 위주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냉전기 소련은 제정 러시아에서부터 이어지는 자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했었다. 비록 현대의 러시아해군은 1991년 12월 소련의 붕괴 이후 소련해군을 승계한 이후 이어진 경제난으로 인해 1970~80년대 최전성기 전력에 비해 2~30% 수준으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1970~80년대 당시 소련해군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한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그러나 소련이 냉전 초창기부터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할 만큼

45) 당시 독일 각계(정치·군사·경제)의 전문가들은 1917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 동안 월 600,000톤 이상의 상선을 격침할 수 있다면 영국을 아사(餓死)시켜 전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2), 180쪽.

의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것은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해군의 전력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강대국의 해군에 비해서 매우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는 1947년 미국과 소련 양국 간 냉전체제가 확고해지면서 소련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부각된다. 왜냐하면 연안방어 중심의 소련의 해군력으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심의 서구 강대국 해군의 포위망을 뚫고 대양으로 진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당시 소련의 지도자 스탈린(Joseph Stalin)은 이러한 소련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964년까지 대규모 함대를 건설한다는 ‘해군력 발전 20년 계획’ 수립을 지시한다.⁴⁶⁾ 하지만 스탈린이 1953년 3월 급사하면서 계획추진에 제동이 걸린다.

스탈린 사후 집권한 흐루시초프(Nikita S. Khrushchev)는 해군력 건설에 대해서 스탈린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흐루시초프는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흐루시초프의 성향을 간파한 소련육군은 흐루시초프 집권 직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국방예산을 집중할 것을 주장하며, 대규모 함대 건설을 위해 투입예정인 소련해군의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군력 건설의 중요성을 간파한 흐루시초프는 소련 육군총사령관 주코프(Georgi K. Zhukov)의 의견을 수용해 1954년부터 해군 신규함정 건조 중단을 지시했고, 1956년에는 ‘해군력 발전 20년 계획’에 대한 예산지원 역시 중단했다.⁴⁷⁾ ‘소련해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당시 소련 해군총사령관 쿠즈네초프(Nikolai G. Kuznetsov) 제독은 이러한 흐루시초프

46) 대양작전 능력을 보유한 대규모 함대를 건설하기 위한 20년 계획의 구체적인 목표는 잠수함 1,200척, 항공모함 4척, 순양함 32척, 구축함 175척 등 이었다. 해군 전투발전단 편,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논산: 해군본부, 2001), 289~291쪽.

47) Philip S. Gillette & Willard C. Frank Jr., *The Sources of Soviet Naval Conduct* (Lexington : Lexington Books, 1990), pp. 165~193; Bryan Ranft &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London : Macmillan Press, 1989), pp.99~103.

의 해군력 경시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다가 결국 원수에서 중장으로 강등되었으며 해군총사령관 직위에서 보직해임 되고 말았다.⁴⁸⁾

하지만 흐루시초프의 해군력 경시정책 기조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는다. 흐루시초프는 1962년 5월 쿠바에 소련의 핵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것을 쿠바 정부에 제안했고,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이를 수락한다. 결국 핵탄두가 장착된 42기의 탄도미사일이 소련에서 쿠바로 비밀리에 운송되었고 미국 본토의 바로 앞마당에 소련 미사일 기지가 건설되기 시작한다. 미국은 이러한 징후를 1962년 10월 14일 U-2기를 이용한 항공정찰을 통해 인지하였고,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다수의 해군함정을 활용해 쿠바를 해상봉쇄하고 소련에게 이미 쿠바에 반입된 탄도미사일을 즉각 철수할 것을 종용했다.

소련은 미사일 배치에 대해 최초에는 극구 부인하였으나 1962년 10월 25일 미국이 UN에서 소련이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 사진을 공개한 이후 태도를 급전환한다. 흐루시초프는 10월 26일에 케네디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과 소련을 겨냥해 터키에 배치된 미국의 탄도미사일 철수를 약속한다면 소련도 쿠바에서 미사일을 철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서 케네디는 10월 27일에 흐루시초프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은 소련이 쿠바에서 먼저 미사일을 철수해야만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을 보장할 것이라고 맞대응한다.⁴⁹⁾ 이미 쿠바가 미국해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해 봉쇄된 상태에서 대미(對美) 대응에 있어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흐루시초프는 어쩔 수 없이 10월 28일에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하여 쿠바 미사일 위기를 일단락 짓는다.⁵⁰⁾

48) 안드레이 파노프, 정재호·유영철 역,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KIDA Press, 2016), p. 347;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1), 292~293쪽.

49) 파노프 (2016), 349~350쪽.

50) 조지 W. 베어,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713~724쪽.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서 흐루시초프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중심 군사전략의 취약점과 탄도미사일 발사플랫폼으로써 해군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흐루시초프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해군이 미국의 쿠바 해상봉쇄에 전혀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을 보며 연안방어 중심의 해군력만으로는 세계 최강의 미국해군에 대적할 수 없다는 것 역시 깨달았다. 이에 흐루시초프는 궁중혁명으로 실각하기 직전인 1964년 10월에 소련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해군 혁신개혁’ 추진을 승인한다.⁵¹⁾

소련 국가지도부의 해군력 중시 기조는 흐루시초프 실각 이후 집권한 브레즈네프 집권기에도 계속된다. 브레즈네프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미국해군과 대적 가능한 기동함대의 가치와 핵무기 운반 수단으로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국가지도부의 이러한 전폭적인 지원과 기대 아래 1956년부터 1985년까지 소련 해군총사령관으로 재직한 고르시코프는 소련해군이 기존에 미국해군에 대해 취해오던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태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공세적인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구상하고 실현한다. 이와 같은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은 ‘균형함대(Balanced Fleet)’에 대한 그의 발언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고르시코프는 “핵무기를 이용한 전쟁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이용하지 않는 재래식 전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상과 공중 및 수중의 전력을 골고루 보유한 균형함대를 건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며⁵²⁾, 또한 전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미국해군과 대적할만한 충분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⁵³⁾

51) Norman Polmar, *Soviet Naval Development 1982*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1981), pp.5~6.

52) Paul J. Murphy, *Naval Power in Soviet Policy* (Washington D.C. : The Auspices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1978), pp.1~22.

53) 세르게이 고르시코프, 임인수 역, 『국가의 해양력』 (서울: 책세상, 1999), 470~501쪽.

<표 7> 소련 주요 해군력의 변화(1959 ~ 1990년)

구 분	1959년	1969년	1980년	1990년
잠수함	351(원잠 3)	385(원잠 65)	355(원잠 165)	344(원잠 194)
항공모함	0	2	4	7
순양함	35	25	43	34
구축/호위함	176	100	108	60

<표 8> 미국 주요 해군력의 변화(1959 ~ 1990년)

구 분	1959년	1969년	1980년	1990년
잠수함	196(원잠 10)	160(원잠 109)	122(원잠 116)	132(원잠 132)
항공모함	79	23	13	14
순양함	58	42	26	42
구축/호위함	364	219	163	133

* 출처 : Jane's Information Group, Jane's Fighting Ships 1959-60/1969-70/1980-81/1990-91.
 * 대양작전이 가능한 구축/호위함급(2,000톤급) 이상 수상함과 잠수함(500톤급)을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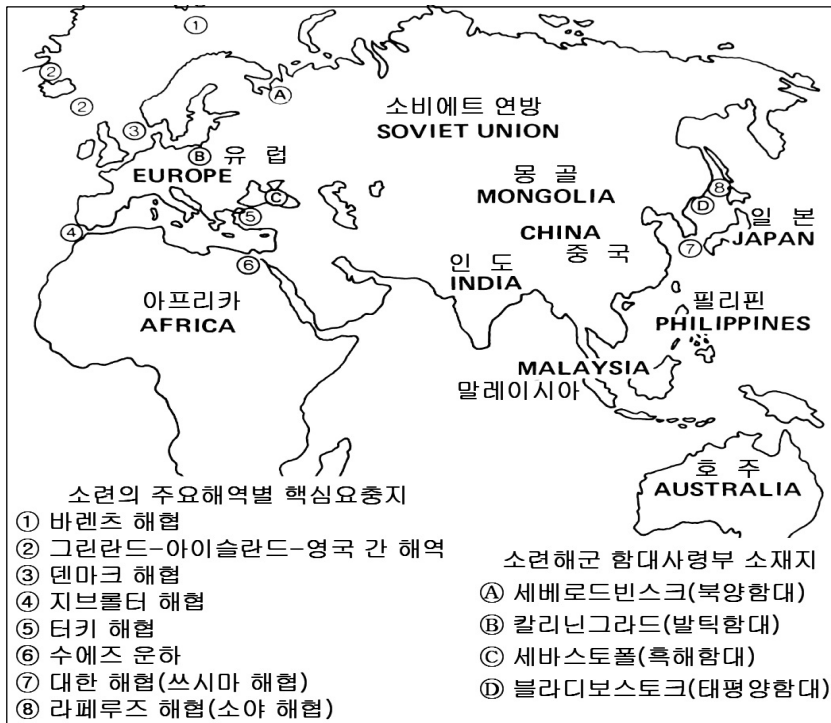
<표 7>과 <표 8>의 연도별 수치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소련의 해양전략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해양거부’ 전략에서 ‘비대칭 해양우세’ 전략으로 변화했다. 특히 소련은 미국의 강점인 대칭전력(항공모함, 수상함)에 대해 일정수준의 전력을 유지하면서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을 중점적으로 건조하였다. 이는 소련이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이 영독 건함경쟁을 통해 영국과 ‘대칭적 군비경쟁’을 추구했던 것과는 상이한 해군력 건설정책을 전개했음을 의미한다.

나. 소련과 미국 간 지정학적 조건 : 해상봉쇄의 어려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소련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존재로 인한 ‘거리와 시간의 압제(Tyranny of Distance and Time)’를 극복할 수 없었다. 흐루시초프가 미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전진 배치한 쿠바는 지리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소련을 겨냥해 터키에 탄도

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얻는 유사한 장점을 갖는 곳이었으나, 미국 해군이 자유롭게 터키로 접근할 수 있었던 반면에 소련해군은 미국 해군과는 달리 자유롭게 쿠바로 접근할 수 없었다. 1962년 당시 소련해군은 대양작전 수행능력이 매우 부족했으므로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없었다.

<그림 4> 소련해군 함대배치 및 주요 해역별 핵심요충지



* 출처 : Bryan Ranft &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London : Macmillan Press, 1989), p.131.

<그림 4>를 보면 유라시아 대륙에서 소련의 영토가 얼마나 광활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소련의 거대한 영토는 오히려 족쇄로 작용했다. 20세기 초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해군 발틱함대가

무리하게 함대를 운용하여 일본해군에게 쓰시마해전(對馬海戰)에서 참패한 것은 소련(러시아)이 가진 광활한 영토에 의한 족쇄가 얼마나 치명적이며 무서운 위력을 갖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⁵⁴⁾

그렇기 때문에 냉전기 소련해군은 4개의 지역함대(북양, 발틱, 흑해, 태평양) 중 미국에 의한 봉쇄가 용이한 발틱함대나 흑해함대에 핵심전력을 배치하지 않고, 북극해에 위치한 북양함대와 오호츠크해에 위치한 태평양함대에 핵심전력을 집중배치 한다. <그림 4>에서 제시된 8개의 소련해군의 주요 해역별 핵심요충지 중 덴마크 해협, 지브롤터 해협, 터키 해협, 수에즈 운하, 대한해협은 미국해군이나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구: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해군에 의해 봉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므로 소련해군은 넓고 광대한 해협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봉쇄가 어려운 ‘바렌츠 해협(Barents Strait, 해협 폭 약 650km)’과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 간 해역(해협 폭 약 1,100km)’을 북양함대의 주 활동구역으로 삼았다. 반면 태평양에 위치한 ‘라페루즈 해협(La Perouse Strait)’은 해협 폭이 약 40km에 불과해 일본에 전개된 미국해군에 의해 봉쇄될 위험성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소련은 이러한 미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1966년 이후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 개념을 선포하며 소련해군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위치한

54) 1904년 10월 15일, 러시아 최강의 발틱함대(Baltic Fleet)는 일본 연합함대(聯合艦隊)와의 일전을 준비하기 위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가 위치한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했다. 이는 장장 18,000NM(약 33,336km)의 대장정이었으며, 항정(航程)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중해의 지브롤터 해협(Strait of Gibraltar)과 수에즈 운하(Suez Canal)를 통과해야만 했다. 하지만 러시아 함대는 1902년 영일 동맹 체결로 일본의 동맹국이 되었던 해양패권국 영국의 방해로 인해 지중해를 통과할 수 없었고, 결국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다. 이는 러시아 발틱함대의 일정에 차질을 주었고,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가중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더 이상의 시간 지체와 승조원의 피로도 축적을 견딜 수 없었던 러시아 발틱함대는 베트남 근해에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로 이동 시 최단 항정의 대한해협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상, 김중기, 강정현, 『세계해전사』 (진해 : 해군사관학교, 2007), 153~154쪽.

오호츠크해(Okhotsk Sea) 전역을 소련의 핵심방어구역 설정한다.⁵⁵⁾ 이를 통해 소련은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었다.

<그림 5> 미국과 NATO해군의 대잠수함전 방책



* 출처 : Bryan Ranft &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London : Macmillan Press, 1989), p.212.

<그림 5>를 보면 소련해군 북양함대에 배치된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고자 미국과 NATO 해군이 얼마나 다차원적인 대잠수함 방책을 구상하고 실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린란드-아이슬

55) 정광호, “냉전기 태평양지역 미·소간 해군력 경쟁: 해양지정학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軍史』 제104호(2017), 140~151쪽.

란드-영국 간 해역에 대잠수함 탐지 및 추적을 위한 잠수함 경비구역 설정하여 소련 잠수함을 집중 탐색했고, 해안기지에서 출격하는 대잠초계기를 활용한 대잠수함 초계활동 역시 적극 실시하였다. 또한 수중감시체계(Caesar)를 해역 곳곳에 배치하여 소련 잠수함의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림 5>에 나타난 대잠수함 방책만 본다면 소련 잠수함이 미국과 NATO해군의 대잠수함 방책에 의해서 완전히 봉쇄되었을 것 같은 착각이 든다. 하지만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으로 인해 <그림 5>와 같은 미국과 NATO의 다층적인 대잠수함전 방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냉전기 당시 북양함대에 배치된 소련의 잠수함들은 특유의 은밀성으로 인해 지정학적 조건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고 부여된 전략 임무를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은 영국에 의한 대독 해상봉쇄가 용이한 최악의 지정학적 조건으로 인해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에서 ‘해양거부’ 전략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냉전기 소련은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조건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는 비대칭 전력(잠수함)을 주요 핵심해역인 북양함대와 태평양함대에 집중 배치 및 운용함으로써 지정학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냉전기 소련은 러일전쟁에서의 참패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몰락을 거울삼아 지정학적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전개하여 냉전기 당시 미국의 해양통제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었다.

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소련의 해양전략 변화

‘소련해군의 어머니’ 고르시코프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통해 미래의 소련해군은 자국 연안방어 임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역에서 미국해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전시와 평시에 있어서 해군의 역할”이라는 논문을 통해 소련해군의 임무를 전시와 평시를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⁵⁶⁾ 영국의 학자 램프트(Bryan Ranft)와 틸(Geoffrey Till)은 고르시코프의 저서, 논문과 소련해군의 작전수행 행태를 분석하여 소련해군의 임무를 <표 9>에 명시된 바와 같이 총 9가지로 구분했다.

소련해군의 9가지 임무 중 고르시코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전략적 공격(Strategic Strike)’과 ‘전쟁 억제(General Deterrence)’ 임무였다. 그는 흐루시초프 집권기 당시 소련해군의 수난기를 겪으면서, ‘핵무기 만능론’과 ‘해군력 무용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논리 마련에 고심했다. 고르시코프는 소련해군이 핵무기의 시대에도 큰 유용성을 지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소련해군은 ‘전략적 공격’과 ‘전쟁 억제’의 핵심적인 수단임을 강조한다. 그는 미국과 소련 간의 강도 높은 핵무기 군비경쟁이 고조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핵탄도미사일 탑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SSBN: Nuclear powered Ballastic Missile Submarine)이 소련의 국가안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았다.⁵⁷⁾ 왜냐하면 SSBN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과 기동성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제1격(First Strike)에도 생존하여 제2격(Second Strike)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SSBN의 생존성과 제2격 능력을 통해 상대방의 우발적인 제1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므로 평시 전쟁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었다.

56) Michael Mccgwire, Ken Booth and John McDonnell, *Soviet Naval Policy : Obejectives and Constraint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1976), pp.547~572.

57) Polmar (1981), pp.3~13.

<표 9> 소련해군의 전시와 평시 임무

구 분		임 무
전 시	對 함대 (vs Fleet)	① 해양통제(Controlling the Sea) ② 자국방어(Homeland Defense) ③ 전략방어(Strategic Defense)
	對 육상 (vs Shore)	① 전략공격(Strategic Strike) ② 상륙작전(Operation against the Shore) ③ 통상차단(Maritime Interdiction)
평 시		① 전쟁억제(General Deterrence) ② 해군외교(Naval Diplomacy) ③ 제한적 지역분쟁(Limited and Local war)

* 출처 : Bryan Ranft &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London : Macmillan Press, 1989), p.158.

<표 10> 소련해군과 미국해군의 전략잠수함(SSBN) 및 핵탄도미사일(SLBM) 현황

구 분	SSBN 보유현황		SLBM 보유현황	
	소련해군	미국해군	소련해군	미국해군
1967년	2	41	32	656
1970년	20	41	316	656
1975년	55	41	724	656
1981년	62	40	950	648
1984년	62	39	940	656
1986년	61	38	923	672

* 출처 : 안드레이 파노프, 정재호·유영철 역,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 KIDA Press, 2016), 356쪽.

소련해군의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적인 전력구조는 <표 10>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10>은 소련과 미국의 SSBN 건조현황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보유현황의 시대별 변화양상을 보여준다. 1960~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SSBN이나 SLBM에 있어 양적 열세였던 소련은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양적으로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 이 같은 미소 양국 간 SSBN과 SLBM 보유현황의 변화는 소련이 미국에 대해 ‘대칭적’인 전력건설을 지향하지 않고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적’

인 전력건설을 추구했음을 의미한다.

고르시코프는 수상, 수중, 공중에서의 균형함대 건설을 주장하면서 서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해군력 구조와 대칭적인 형태로 전력 건설을 추구하다가 몰락한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미국의 상대적 약점인 핵잠수함 전력의 열세를 공략한다. 약 30년간 소련해군 총사령관으로 재직한 고르시코프는 핵잠수함 중심의 전력 건설로 소련 내 해군력 무용론자들의 논리를 무력화하고 해군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이를 통해 고르시코프는 수중전력 뿐만 아니라 수상·공중전력까지 포함하는 균형적인 해군력을 건설했고, 결국 냉전기 당시 세계 최강의 미국해군조차 함부로 상대할 수 없었던 막강한 세계 제2위의 소련해군을 만들어낸 것이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소련은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전력 건설뿐만 아니라 대양작전 수행능력을 보유한 수상함 전력을 활용하여 공세적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소련해군의 공세적 활동의 시발점은 1964년 소련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의 동아프리카 연안국 항구방문(Port Visit)이었다.⁵⁸⁾ 소련해군 함정의 항구방문 정책은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소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과 미국에게 소련해군의 향상된 대양작전 수행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⁵⁹⁾ 이는 1970년대 들어 본격화 되었으며, 지중해의 시리아(Syria)와 알제리(Algerie), 서아프리카 해안의 앙골라(Angola)와 기니(Guinea), 인도양의 세이셸(Seychelles)과 에티오피아(Ethiopia), 예멘(Yemen), 모잠비크(Mozambique)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한층 향상된 소련해군의 대양작전 능력을 전 세계 각지에 현시(顯示)했다.⁶⁰⁾

58) 베어 (2005), 751쪽.

59) Peter Tsouras, "Port Visits," in Bruce W. Watson, Susan M. Watson (eds.), *The Soviet Navy: Strength and Liabilitie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p.267~270.

소련은 항구방문을 통한 해군력 현시에 비해 보다 더 공세적인 성격을 지니는 해상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1970년 소련해군 북양함대의 모항인 세베로드빈스크(Severodvinsk) 근해에서부터 노르웨이 근해에 걸쳐 펼쳐진 ‘오킨 70(Okean 70)’ 훈련은 200척 이상의 수상함, 잠수함이 참가한 대규모의 대미(對美) 군사력 시위였다. 이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점차 향상된 소련해군의 대양작전 수행능력을 미국해군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⁶¹⁾

1960년대 후반부터 소련은 세계 각지에서의 자국 영향력 확대를 위해 주요 국제분쟁지역으로 해군력을 파견하기 시작한다. 소련은 지중해 지역에서 발생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과 1970년 요르단 위기,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1974년 키프로스 분쟁, 1976년 레바논 내전 당시 소련해군 흑해함대 소속의 다수 함정을 파견하여 미국의 중동지역 전략수행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또한 소련은 태평양과 인도양 지역에서 발생한 1971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 1977년 에티오피아-소말리아 전쟁,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과 이란 위기 등에 대해서도 다수 함정으로 구성된 해군 기동조직(Task Force)을 파견하여 미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제3세계에서의 자국 영향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⁶²⁾

60)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1), 306~307쪽.

61) 배어 (2005), 752쪽.

62) Brian Larson, "Soviet Naval Responses to Crises," in Bruce W. Watson, Susan M. Watson (eds.), *The Soviet Navy: Strength and Liabilities* (Boulder: Westview Press, 1986), pp.255~264.

5. 결 론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 냉전기 소련과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양국 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양패권 도전국가 해양전략의 성패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과 소련 모두 특정 사건에서의 해양패권 도전실패를 계기로 해양전략을 변화시켰고, 이러한 전략 변화의 양상을 기술요소(해군력 수준)를 계량화한 지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사례인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은 지정학적 조건의 불리함을 간과하고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추구하여 실패한 대표적 사례이다. 독일 사례연구에서는 1916년 유틀란트 해전을 기점으로 독일의 해양전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영독 견함경쟁에서부터 유틀란트 해전까지 해양패권국인 영국에 필적하는 해군력 보유를 목표로 대형전투함(전함) 중심의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추구했다. 하지만 독일은 지정학적 조건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유틀란트 해전에서 전략적으로 패배한 이후 잠수함 중심의 통상과괴전을 추구하는 ‘해양거부’ 전략으로 전환하고 만다. 이는 해양패권 도전국가 독일이 전력건설이라는 기술요소에만 경도되어 지리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지정학적 이점과 우세한 해군력을 가진 해양패권국 영국에 대해서 ‘대칭적 해양우세’ 전략만을 고집하다가 실패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사례인 냉전기 소련은 지정학적 조건의 불리함을 상쇄할 수 있는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선택하여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하는데 성공한 대표적 사례이다. 소련 사례연구에서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소련의 해양전략이 어떻게 변화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핵무기 만능론’에 경도된 흐루시초프는 1953년 집권 이후부터 1962년까지 해군력의 중요성을 간과했었

다. 하지만 그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면서 대양작전 수행이 가능한 해군력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소련 해군은 고르시코프의 진두지휘 아래 수중, 수상, 공중전력을 모두 갖춘 ‘균형함대’ 건설을 목표로 전력 증강에 매진한다.⁶³⁾ 하지만 고르시코프는 소련이 당면한 안보환경과 지정학적 조건, 미국과의 해군력 격차 등을 고려하여 소련의 해군력 열세와 지정학적 불리함을 극복하는 최적의 수단인 잠수함 전력건설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선택한다.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택한 소련은 잠수함 특유의 은밀성을 활용해 미국이 가진 지정학적 이점과 해군력 우세를 일정부분 상쇄할 수 있었고, 전세계 바다에서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했다.⁶⁴⁾ 이는 해양패권 도전 국가 소련이 지리요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에 대한 지정학적 불리함과 해군력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잠수함 중심의 ‘비대칭적 해양우세’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냉전기 동안 미국의 해양패권을 위협하는데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냉전기 소련의 사례는 일견 유사한 점이 있다. 독일과 소련 모두 결국에는 비대칭 전력인 ‘잠수함’ 중심의 전력구조를 갖추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독일과 소련은 서로 확연히 다른 성과를 거두었다. 왜냐하면 양국 사례 간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컸기 때문이다. 냉전기 소련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가장 상이했던 점은 다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지정학적 조건에 있어서 독일은 영국에 의한 대독(對獨) 해상봉쇄가 매우 용이한 조건이었으나, 소련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정학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의한 대소(對蘇) 해상봉쇄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다. 둘째는 독일

63) 고르시코프 (1999), 357~396쪽.

64) 고르시코프 (1999), 427~436쪽.

은 자국의 지정학적 조건의 유·불리를 심도 깊게 고려하지 않고 유틀란트 해전 시까지 영국과 대칭적 형태로만 해군력 건설을 추진 하였지만, 소련은 자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해양패 권국 미국의 상대적인 취약점을 파고드는 비대칭전력(잠수함) 중심 의 해군력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1차 세계대전 시 독일과 냉전기 소련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해양패권 도전국가의 해양전략 변화양상은 21세기 미국의 해양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 어떠한 함의를 지니고 있 을까? 본 연구의 중점인 ‘지리요소(지정학적 조건)’를 통해 분석한 미중 간 해양패권경쟁의 형국(形局)은 중국에게 매우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6월 미국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통해 공언한 바와 같이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을 넘어 인도양 지역까 지 중국을 향한 촘촘한 포위망을 세밀하게 전개 중이기 때문이다.⁶⁵⁾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를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 적’ 전력증강에 힘쓰고 있어 향후 미중 간 해양패권경쟁이 어떻게 귀결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중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의 강력한 항공모함 전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함탄도미 사일(ASBM: Anti-Surface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고도화⁶⁶⁾

65) U.S. Department of defense,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66) Missile Defense Project, "Dong Feng 21 (DF-21/CSS-5),"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13, 2016 last modified April 23, 2019), (접속날짜: 2019년 5월 28일),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f-21/>; Missile Defense Project, "Dong Feng-26 (DF-26),"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8, 2018 last modified January 15, 2019), (접속날짜: 2019년 5월 28일),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ong-feng-26-df-26/>; 안성규, 최강, 권은율,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5-19(2015.11.10.), 3쪽; 토시 요시하라, 제임스 R. 홉즈, 『태평양의 붉은 별』 윤석준 역(서울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12), 143~174쪽.

하고 있으며, 미국에 비해 열세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 증강에 힘쓰고 있다.⁶⁷⁾ 미국의 지정학적인 압박 속에서 이러한 압박을 돌파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충돌하여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고투고일 : 2019. 7. 3, 심사수정일 : 2019. 7. 30, 게재확정일 : 2019. 8. 9)

주제어 : 해양전략, 지리요소, 해군력 군비경쟁, 독일해군, 소련해군

67) 요시하라, 홉즈 (2012), 175~214쪽.

<참고 문헌>

- 고르시코프, 세르게이. 임인수 역. 1999. 『국가의 해양력』 서울: 책세상.
- 그랜트, R. G. 조학제 역. 2012. 『해전 3000년』 계룡: 해군본부.
- 김용구. 2017.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일상. 김종기. 강정현. 2007. 『세계해전사』 진해: 해군사관학교.
- 되니츠, 칼. 안병구 역. 1995. 『10년 20일』 서울: 삼신각.
- 마샬, 팀. 김미선 역. 2016. 『지리의 힘』 서울: 사이.
- 마한, 알프레드 T. 김주식 역. 2016.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서울: 책세상.
- 몽고메리, 버나드 르. 승영조 역. 2006. 『전쟁의 역사』 서울: 책세상.
- 박상섭. 2014. 『1차세계대전의 기원: 패권경쟁의 격화와 제국체제의 해체』
파주: 아카넷.
- 박상섭. 2018. 『테크놀로지와 전쟁의 역사』 파주: 아카넷.
- 베어, 조지 W. 김주식 역. 2005. 『미국 해군 100년사』 서울: 한국해양
전략연구소.
- 스티븐스, 윌리엄 O. 앨런 웨스트콧. 김일상 역. 1979. 『세계해전사』
서울: 연경문화사.
- 요시하라, 토시. 제임스 홈즈. 윤석준 역. 2012. 『태평양의 붉은 별』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카플란, 로버트 D. 이순호 역. 2017. 『지리의 복수』 서울 : 미지북스.
- 콜벳, 줄리언 S. 김종민·정호섭 공역. 2009. 『해양전략론』 서울: 한국
해양전략연구소.
- 케네디, 폴 M. 김주식 역. 2010. 『영국 해군 지배력의 역사』 서울: 한
국해양전략연구소.
- 클레벨트, 마틴 반. 이동욱 역. 2006. 『과학기술과 전쟁: B.C. 2000
부터 오늘날까지』 서울: 황금알.
- 키건, 존. 조행복 역. 2009. 『제1차세계대전사』 서울: 청어람미디어.
- 틸, 제프리. 배형수 역. 2011. 『21세기 해양력』 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파노프, 안드레이. 정재호·유영철 역. 2016. 『러시아 해양력과 해양전략』
서울: KIDA Press.
- 하정열. 2009. 『국가전략론-이론과 적용』 서울: 박영사.
- 한용섭. 2018. 『국방정책론』 서울: 박영사.
- 합동참모본부 편. 2014. 『합동교범 10-2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 서울: 합동참모본부.
-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1. 『중국·러시아 해군사 연구』 논산: 해군본부.
- 해군 전투발전단 편. 2002. 『독일 해군사 연구』 논산: 해군본부.
- 해군 전평단 교리발전처 편. 2017. 『기본교범 0 해군기본교리』 계룡: 해군본부.
- 해군 전평단 전력발전처 편. 2017. 『해양전략용어 해설집』 계룡: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
- Asprey, Robert B. 2005. The German High Command at War. Lincoln: iUniverse, Inc.
- Bennett, Geoffrey. 2014. Naval Battles of the First World War. An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 Gillette, Philip S; Willard C. Frank Jr. 1990. The Sources of Soviet Naval Conduct. Lexington: Lexington Books.
- Gordon, A. 1996. The Rules of the Game. London: John Murray.
- Herwig, Holger H. 1987. 'LUXURY FLEET' : The Imperial German Navy 1888-1918. New York: Humanity Books.
- Hezlet, Arther. 1967. The Submarine & Sea Power. London: Peter Davis.
- Jane's Information Group. 1959. JANE'S FIGHTING SHIPS 1959-60. London: Jane's Fighting Ships Publishing Co. LTD.
- Jane's Information Group. 1969. JANE'S FIGHTING SHIPS 1969-70. London: Jane's Fighting Ships Publishing Co. LTD.
- Jane's Information Group. 1980. JANE'S FIGHTING SHIPS 1980-81. London: Jane's Fighting Ships Publishing Co. LTD.

- Jane's Information Group. 1990. JANE'S FIGHTING SHIPS 1990-91. London: Jane's Fighting Ships Publishing Co.LTD.
- Mccgwire, Michael; Ken Booth and John McDonnell. 1976. Soviet Naval Policy : Obejectives and Constraint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Murphy, Paul J. 1978. Naval Power in Soviet Policy. Washington D.C.: The Auspices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 Organski, A.F.K. 1968. World Politics. N.Y.: Alfred a. Knopf.
- Polmar, Norman. 1981. Soviet Naval Developments 1982. London: Arms and Armour Press.
- Ranft, Bryan. Geoffrey Till. 1989. The Sea In Soviet Strategy. London: Macmillan Press.
- Sondhaus, Lawrence. 2014. The Great War at S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S. Department of defense. 2019. INDO-PACIFIC STRATEGY REPORT: Preparedness, Partnerships, and Promoting a Networked Region. Washington: U.S. Department of defense. <https://media.defense.gov/2019/Jul/01/2002152311/-1/-1/1/DEPARTMENT-OF-DEFENSE-INDO-PACIFIC-STRATEGY-REPORT-2019.PDF>
- Watson, Bruce W. Susan M. Watson. 1986. The Soviet Navy: Strength and Liabilities. Boulder: Westview Press.
- 안성규. 최강. 권은율. 2015. “중국 탄도미사일이 한반도에 던지는 함의.”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제2015-19호(2015.11.10.). <http://www.asaninst.org/contents/%EC%A4%91%EA%B5%AD-%ED%83%84%EB%8F%84%EB%AF%B8%EC%82%AC%EC%9D%BC%EC%9D%B4-%ED%95%9C%EB%B0%98%EB%8F%84%EC%97%90-%EB%8D%98%EC%A7%80%EB%8A%94-%ED%95%A8%EC%9D%98/>

- 정광호. 2017. “냉전기 태평양지역 미·소간 해군력 경쟁: 해양지정학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軍史』 제104호.
<http://doi.org/10.29212/mh.2017..104.121>
- Evera, Stephen van. 1998. "Offense, Defense, and the Cause of War." *International Security* 22:4 (Spring, 1998).
<https://doi.org/10.1162/isec.22.4.5>
- Glaser, Chales L; Chaim Kaufmann. 1998. "What is the Offense-Defense Balance and Can We Measure it?" *International Security* 22:4 (Spring, 1998).
<http://doi.org/10.2307/2539240>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January, 1978).
<http://doi.org/10.2307/2009958>
- Kaplan, Robert D. 2010. "The Geography of Chinese Power: How Far Can Beijing Reach on Land and at Sea?" *Foreign Affairs* Vol.89 No.3 (May/June 2010).
<https://www.foreignaffairs.com/articles/china/2010-05-01/geography-chinese-power>
- Missile Defense Project. "Dong Feng-26 (DF-26)."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8, 2018 last modified January 15, 2019), (접속 날짜 : 2019년 5월 28일),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ong-feng-26-df-26/>.
- Missile Defense Project. "Dong Feng 21 (DF-21/CSS-5)." *Missile Threat*,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pril 13, 2016 last modified April 23, 2019), (접속 날짜 : 2019년 5월 28일), <https://missilethreat.csis.org/missile/df-21/>.

<Abstract>

A Change of Maritime Strategy in the Maritime dissatisfied great powers by Geographical factors: Focusing on Germany in the World War I and Soviet union in the Cold war

Kim, Dong-eun

This study began with questions about the maritime strategy changes in the maritime dissatisfied great powers and how there is any correlation between technology (naval arms level) and geography (geopolitical conditions) factors. Therefore, in order to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geographical factors (geopolitical conditions) and maritime strateg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maritime strategy into three categories: 'Sea control (offensive)', 'Sea supremacy (complex)' and 'Sea denial'. The numerical change in the technological factor (naval arms level) was also used as a means to observe changes in maritime strategy due to geographical factors.

This framework of analysis was applied to two major historical cases of the maritime dissatisfied great powers. The first is the case of the German Imperial Navy, which challenged the United Kingdom during World War I, and the second is the case of the Soviet Navy, which challenged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Cold War. Although the two cases are similar in some respects, they have pursued different types of maritime strategies due to their different geographical conditions. As a result, the direction of naval arms construction is also affected and the maritime hegemonic challenge against the maritime hegemonic nation has failed.

I will apply and verify the framework of the researcher 's analysis on the change of maritime strategy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change of the maritime strategy of Germany during the World war I and Soviet

during the Cold war above. I would also like to examine how this analysis can be applied to the new maritime hegemonic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21st century.

Key Words : Maritime strategy, Geographical factors, Naval arms race,
German Imperial Navy, Soviet Navy